

■ 예술영화 전용관 지정 10년 '광주극장'

전시관으로... 콘서트장으로...

시민의 '문화 플랫폼'

오래된 낡은 영사기, 손으로 그린 '영자의 전성 시대' 영화 간판, 낯익은 얼굴이 가득한 영화 포스터...

그 사이로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보인다. 초록색 테이بل보가 덮인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건 '화염병'과 플라시틱 컵들. 탁자 사이에는 부서진 미니 여저 열차가 조명 아래 놓여있다. 목조와 유리 구조물이 자리잡고 있다. 싱가포르 예술가 그룹 '버티컬 서브 마린'의 작품 '숲: 무수 평의 한 켠'이다.

7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전국 유일의 단관 극장, 광주극장의 2012년 9월 어느 날 풍경은 신선하다.

올해는 광주극장이 지난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처음 시행한 예술전용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선정된 극장은 하이퍼텍 나다, 미로스페이스 등 모두 세 곳. 현재 두곳이 문을 닫으면서 광주극장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전용관이다.

예술영화관 10년을 맞은 광주극장은 단순히 영화만 상영하는 곳이 아니다.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영화관 옆 사택도 문화공간으로

광주극장은 오는 11월11일까지 계속되는 2012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버티컬 서브마린의 작품 외에 3층 복도에는 나주 출신 작가 조현택의 '소년이여 아망을 가져라' 사진 시리즈가 걸려 있다. 조씨는 전시 장소가 '영화관'이라는 점에 착안, 기존 사진전에서 선보여온 액자 작품과 함께 영화 포스터와 영화 간판 형식으로도 작품을 소개, 얼핏 진짜 현재 개봉중인 영화처럼 보인다.

극장에서는 또 매일 한차례씩 크리스마커의 다큐 '매벨 파이브'와 엘렌 세클러 & 노엘 버치의 '잊혀진 공간'이 무료로 상영 중이다.

극장 바로 옆에 위치한 50년된 사택 역시 전시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멕시코 작가 아브라함 크루스비에가스는 3주간 사택을 찾아 현장에서 워크숍 등을 진행했고, 낡은 유리창과 나무 문틀 등으로 만든 작품 등을 전시 중이다.

사실, 극장의 뒷편과도 연결돼 있는 '사택'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레지던시 공모에도 응모했었고, 올 봄부터는 광주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무언가를 '도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



광주극장은 오는 11월 1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의 전시장으로 활용된다. 극장의 오래된 영사기, 영화간판과 어우러진 '버티컬 서브 마린'의 작품.

전국 유일 단관극장...1년에 150여편 상영

비엔날레 전시장 활용...설치·영화 등 7작가

'음악으로 통하다', 영화감상 '씨네클럽' 인기

있던 매력적인 공간이다. 낡고 수리할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세들어 살고 있는 급속세공업자들 모두 떠나면서,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청소를 하고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었다.

극장측은 비엔날레가 끝나면 관객들과 함께 페인트칠을 하고, 장판을 까는 등 조금씩 다듬어 극장에서 운영하는 영화 소모임과 극장을 찾는 영화 감독과 배우들의 뒷풀이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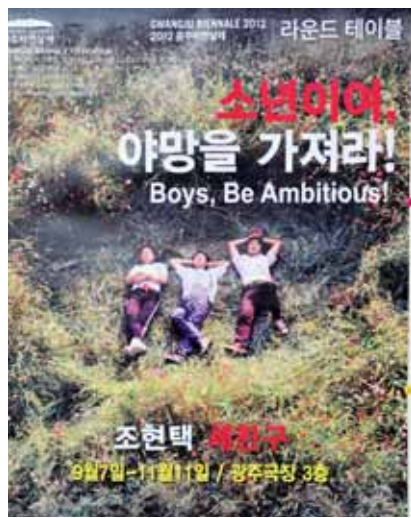
▲손으로 직접 그린 영화간판 눈길

광주극장은 무엇보다 멀티플렉스관에서는 외면한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소중하다.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역시 베니스영화제 수상전부터 상영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대형 멀티관들이 모두 영화를 상영하면서 관객수가 급감하기는 했지만 '워낭소리', '올지마 스톤' '우리학교' 등 작은영화들의 출발점은 언제나 광주극장이었다.

광주극장이 해마다 상영하는 영화편수는 약 130~150여편에 이른다. 관객수는 2만~2만5000여명. '미드나잇 파리', '두 개의 문', '폭풍의 언덕' 등이 인기를 얻었던 올해는 3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매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관 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아 5000만원을 지원받는 광주극장의 경우 4만명 수준이면 극장 운영에 큰 애를 먹지는 않는다는 게 극장측의 설명이다.

광주극장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관객과의 대화'다. 일반 영화관에서 진행되는 배우들의 무대인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감독, 배우와 진솔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소중한 기회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들은 아니지만, 정재은·전계수·김태웅 감독, 배우 김꽃비 등 의미있는 영화에 출연했던 이들이 극장을 찾았고, 관객과의 대화 후에는 맥주 한잔 마시며 뒷풀이도 진행한다.

1년에 한차례씩 간판장이 화가 박태규 씨가 그리는 영화 손간판은 광주극장만이 갖고 있는 자산이다. 지금은 관객들과 함



영화 포스터 형식을 차용한 비엔날레 참여작가 조현택 '소년이여 아망을 가져라'.

께 작업한 '어머니' 간판이 걸려 있다. 광주프랑스문화원과 진행하는 '음악으로 통하다'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제즈 피아니스트 도미니크 피옹 등 프랑스 출신 뮤지션들이 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했었다.

광주극장에서는 또 매주 수요일(오후 7시) 한 감독의 영화를 집중감상하는 씨네클럽을 운영중이며 토요일에는 유망철씨와 함께 고전영화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그밖에 동화 원화 전시회, 드로잉전, 옛날 포스터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회도 늘상 열리고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시립미술관 방문 1년에 1번”

개관 20주년 설문...활성화 대책 시급

광주시립미술관이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20일 광주시립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관람객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시립미술관을 찾는 횟수를 묻는 질문에 '연간 1~2회 이하'를 꼽았다. 시립미술관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높은데다, 시민들의 무관심, 홍보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나온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매달 한 차례 이상 방문한다'(11%)로 답변하거나 '연간 7~11회 찾는다'(7%)는 응답자 뿐 아니라 '1년 중 한 차례도 방문한 적이 없다'(11%), '몇 년에 1회 정도 방문한다'(16%) 등의 답변도 적지 않았다. 또 연간 1~2차례 미술관을 찾겠다는 중고생 비율이 67%에 달해 향후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미술관 홍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미술관을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관람객들의 42%는 '전시 정보가 부족해서'를 꼽았고 '교통 불편'(22%), '미술관이 있는지조차 모른다'(9%), '불편한 전시가 없어서'(7%) 등으로 답변해 미술관 홍보 전략 개선 및 차별화된 전시 기획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도 응답자의 74%가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았다', 13%는 '1~2회 참여했다'고 응답했고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별 관심 없어서'(27%),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2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시립미술관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는 관심있는 전시 분야로 서양화·한국화 등 평면회화 분야를 꼽았고 전시 내용별로는 블록버스터급 대형 전시(26%),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실험적 전시(26%), 해외 현대미술 전시(20%)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윤기자 dok2000@

국내외 예술가 100명과 '문화파티'

아시아예술창작스튜디오 오늘 '드로잉전'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이 막걸리 한 사발들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행사장 곳곳에서 작가들이 밤새도록 자유롭게 스케치를 하는 보기 드문 문화 파티가 열렸다.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와 2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광주시 광산구 아시아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여는 '2012 드로잉파티-Come Together yeah!'전은 지역민들이 작가의 창작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행사다.

자기 창작 공간에만 불박혀 있던 100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모처럼 한 장소에 모여 꼬박 하루 동안 전시를 만들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드로잉이 작가의 구상과 기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다, '올 나잇 파티'인 만큼 참여한 지역민들은 작가의 작품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다.

정해진 틀이 없이 예전 학교로 쓰였던 스튜디오 건물 전체를 캔버스로 활용하면서



작가들의 독특한 내적 세계와 다양한 실험 정신이 작품에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작가들의 드로잉 파티 결과물은 22일부터 28일까지 옛 본량중인 아시아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전시된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대인예술아시아장 21·22일 개장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대인시장 일대에서 대인예술시장 느티나무미술관과 공동으로 '대인예술 아시아장'을 연다.

시장 주변에 등을 달아 불을 밝히는 이벤트인 '등불 프로젝트'와 시장에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이 내놓은 간이 판매대인 '만물마차', 먹거리 등 예술품 판매대가 마련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oo Hotel & Arirang House celebrating 30th anniversary with 30% OFF SALE. Includes contact info and website.

Advertisement for Geumsoo Hotel & Arirang House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Hanjeongsik and various services. Includes menu prices and contact info.